



지난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들이 2018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도정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 도정 현안 해결 총력

▶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 과 · 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내년도 예산 최대 달성 반영에 부정적인 쟁점 현안 지원 대선공약 이행 법령 제개정 · 대규모 행사 반전전략 제시

전북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도정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및 실·국장,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 해결방안 논의와 14개 시군별 현안사업에 대해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2차 예산심의(7월 4일부터 18일까지)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으로 2018년 국가예산 최대 달성을 위해 기재부가 예산반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서는 총 989건에 7조1,590억원을 요구해, 부처에서 5조6,537억원이 반영(전년대비 1,055억원 증액)되었으나 6

조원대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 4개 분야를 타겟으로 설정,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국립 지리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국립 추진과 동향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국가주도 시설 건립 등 지방비 부담요구 해결이 필요한 4개 사업이다.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2단계 수질개선' 등 부처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새만금 관련 10개 주요 사업이다.

아울러 새정부 지역공약인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종자·미생물 등 5대 농생명 육성사업, 탄소산업 상용화를 위한 탄소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 16개 사업이다.

그 밖에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의 조속한 예타통과가 필요한 3개 사업이다.

또한, 정부 추경이 국회에서 심사중으로 대부분 POOL예산 형태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도에서는 도정현안으로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법령 제개정 지원과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서도 건의, 지난 40여일 동안 개최된 세가지 대규모 국제행사의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도에 영향이 큰 SOC를 비롯한 산업, 농업분야 예산 축소와 신규 사업 억제, 계속사업 전면 재검토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 시군 공조가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전국 최초 '빛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주시, 기후변화·물부족 사태 능동적 대비 위해 빛물사용자 수도요금 감면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선

물 순환체계 구축에 의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물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주시의 독창적인 노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빛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을 촉진하고 빛물을 친환경 대체 수자원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빛물은 소중한 자원이자기보다는 땅에 떨어지면 곧바로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빛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적은 양의 빛물도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모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빛물이용시설의 지속적·정상적 사용을 촉진하고 빛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고안한 소프트웨어 '빛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전산시스템을 통한 빛물이용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빛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기분현황, 시설

사건자료, 빛물사용량 검침관리, 보조급급관리, 시설 유지관리 점검대상, 빛물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절차 및 빛물사용량 자가 검침 요령, 홈페이지 등록' 등 매우 상세하게 구성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쉽게,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빛물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빛물이용시설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3월에 실시한 빛물이용시설 14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가 빛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완성한 빛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이 빛물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빛물을 친환경 대체 수자원으로 확보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물론, 지하수 충전용수로도 실용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추적인 행정 인프라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15분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정 의장이 추경안을 오늘 오후 2시15분 예결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이와 관련해 양해를 구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 의장 입장은 정부-여당 뜻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심의를 요청했으니 심의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다. 심의해서 아니면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상정의 건 등을 논의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어 추경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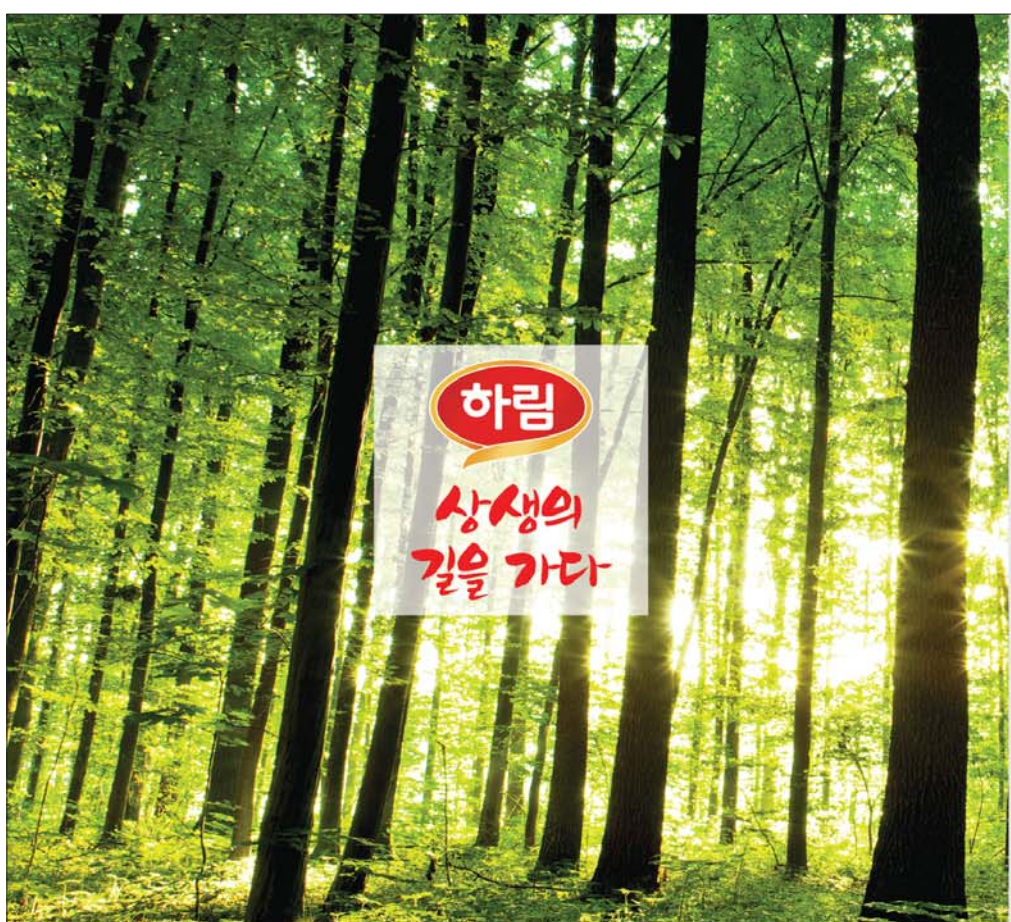
군산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2개 모두 선정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운영 사업에서 신청한 2개의 교육과정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은 채용약정을 맺은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현장실습, 학생 관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업체로 취업하는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이다. 취업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산대학교는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유통, 물류, 마케팅을 연계해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식품클러스터 전공' ▲양어사료 산업에 적합한 창의적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해양생물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양어사료 인력 양성 트랙' 등 두 개 과정을 올해 2학기부터 운영한다. 선정된 2개의 교육과정은 2019년 2월까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군산=장 현 기자



하림
상생의 길을 가다



- 자연 그대로의 감동
- 1. 농가 97% 계열화 사업 완성
- 2. 농가 조수의 2억 추진 수익성 향상
- 3. 유력형 사육기술 교육 전문인 양성



- 품질혁신과 일자리창출
- 1. 친환경 제품개발
- 2.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 3.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삼의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을 나누는 기업



- 고객가치창출과 행복나눔
- 1. 고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실천
- 2. 지역인재육성 다양한 교육 기부
- 3. 고객에게 감동주는 기업